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기도서 P. 317

제 1 독서 (신명 8, 2-3, 14-16절)  
제 2 독서 (고린전 10, 16-17절)  
복 음 (요 한 6, 51-59절)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情을 가지고

강 인 찬 신부

사람들은 다른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정을 느끼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의 정을 느껴 돈이나 재물이 없으면 일이라도 해서 몸으로라도 정을 표시한다. 뒷사람으로부터 신물을 받으면 황송해하고, 기뻐 만족해한다. 어떤 정을 느꼈음을 말해준다. 정을 느끼는 것이 목석(木石)이 아닌 이상 당연하리라.

오늘은 어느 축일보다도 가장 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정을 느끼게 해주는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하느님께 봉헌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사제로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자들의 태도를 바라본다. 각양 각색이다. 보란듯이 거만스럽게 받는 사람, 아무 생각없이 타성적으로 하던 습관대로, 남의 눈치보며 마치 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황송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겸손하고 소박한 할머니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나 행동에 드러날 정도로 정이 넘치게 받는 진심많은 예루살렘 부녀들도(?) 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자들의 태도는 행동과 일치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다시 말해서 영성체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생활과 일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을 가지고 영성체하기 때문이리라.

<빛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송두리채 바치셨을 뿐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와같은 크신 사랑에 진정 정을 가지고 성체를 받는다면 그에 따르는 행동의 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는 진정 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체를 받는가?

메마른 이 시대에 더욱 정이 필요하다. 영성체 할때마다 정을 가지고 받자. 그리고 정을 정으로 보답할 줄 알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과 피의 일부(빵, 시간, 재물)를 다른이에게 나누어 주자.

우리가 영성체 할때 마다 우리안에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안에 사시느니라>

<고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 그림 같은 집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하다보면 그림같은 집들을 볼 수 있다. 울긋불긋하게 페인트칠을 해 놓아서 더욱 그림같아 보인다. 땅이 좁아서인지 대개는 웅기충기 모여 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또한, 멀리서 보면 비둘기 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때, 계막지같은 조가집 흙벽에 하얗게 회칠을 했던것 보다는 훨씬 낫다. 그 모습이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았으니까.

요 몇년 사이에 건축 붐이 일어났다. -여기 저기서 우뚝우뚝 솟아오르는 아파트. 흉내만은 다내어 지은 프랑스식 뽕죽집. 활기있게 벌어지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그만 문제가 터졌다. 건축자재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당분간 제한하고, 그래서 상공부차관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시멘트 파동 뒤에 숨어있던 업자의 장난이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그 업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관계공무원이다. 시멘트를 재포장해서 빼먹고, 상공부등의 고위 공무원들은 메모를 업자에 보내 100만부대나 정실(情實)배정을 했다니,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고시가격. 그에 뒷돈을 얹어 주어야 하는 암거래. 가격은 올리지 못해 양을 줄이는 방법. 서정쇄신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횡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뿌리가 다 안 뽑혀서 그런지, 병든 가지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품은 항상 재주만 넘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거기다가 비까지 오지 않는다. 모두들 자신을 솔직히 반성하자. "나는 부정공무원이 아닌가, 뒷돈이나 얹어 받는 폭리를 취한 상인은 아닌가, 부도덕하지는 않았는가?"고. 그리고 하느님께 비를 주시라고 빌자.

## 숲 정 이 산책



자세한 문헌은 전주노송성당으로  
직접 문의 바람



# 진실은 말해져야 한다.

「진실은 말해져야 한다.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자유와 정의의 싸움은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신념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심을 믿으며 기도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통통 하느님 나라의 새 역사를 믿고 있으며, 이 새역사의 수레바퀴에 제동을 거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 온 정열을 다 쏟아 오면서 최근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 “이것이 산업선교다”라는 책자 배포를 방조하면서 신랄한 백성들의 의식을 마구 유린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 이런 책자를 노동자들과 기업주와 그 간부들에게 입혀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가리우며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 혹은 부채질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밝힌바대로 이것은 분명히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의 일각이었다. 나아가 산업선교의 현장에서 불온책자의 허구와 가면을 벗기면서 진실을 들어내기 위해 동서분주하던 우리의 선교동지 인명진 목사들이 처치수속이 없는 혐의로 구속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감사를 나왔다는 신용조합 감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신용조합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니 아연 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과 정부관료의 밀착도는 말할것도 없이 오늘의 권력자들이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동지가 구속되었다는 아픔보다는 이와 같은 권력구조를 더 위험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작년, 청계천 피복 근로자들의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근로자들, 지난 부활절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들, 인천 통일방직의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들, 춘천 농민회의 관련자로 구속된 근로자들은 이 땅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와 땀을 제물로 바쳐 이 나라의 경제적 밑바탕이 되고 있고 국가적 기관의 희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토록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을 치르면서 가장 값싼 임금과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답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들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는 오늘, 판로들의 야비하고 부도덕적인 처사를 우리는 개탄한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감옥에서 법정에서 대담하게 몇몇하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긍지를 느낀다는 소식을 들을때 우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오늘의 법조계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불행이들의 외침이 아니겠는가.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 땅의 농민들이 겪는 현실은 어떤가? 고속도로 주변의 화려한 페인트집, 농민들의 애환이며, 쌀 수매가격

의 부조리, 최근에 문제가 된 합평 고무마 사건 및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농민에게 심각한 생존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농현상이 생기고 농촌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보아왔고 이것은 정부의 농민정책의 결여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와 일부 특권층의 토지매각으로 인한 이 모든 문제를 좌시할 수가 없다. 농민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을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순박하게 땅을 파고 땅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간교함과 치사함이 여실히 폭로되고 있지 않은가? 청주의 어느 농민이 공무원의 사기극에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는데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 억울함에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면 여론이 무서워 요구를 들어주겠노라고 해놓고, 단식을 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유치한 거짓말을 누워서 먹먹듯 하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7년전 인천에 있는 한국 배아령에서 발일을 하며 졸다가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재판을 청구했는데 무려 7년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것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의 한국 기업이, 특히 수출을 표방하는 모든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리한 야간작업을 강요하는 야간작업을 하면서 줄지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졸다가 해고를 당하면 모두가 쫓겨나야하는 법적판례는 이 나라의 경제안정과 노동자의 인권에 크게 위협을 주는 판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회선교협의회 총무 이창복씨가 당하는 현실도 그렇다. (78. 5. 16일자 한국 교회 사회선교 협의회 성명서 중에서)

「도대체 “가톨릭 노동청년회나 산업선교회는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거꾸로 “노동청년회나 산업선교회를 친공적으로 몰아부치는 그런 소행은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역질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같은 소행 배후에 권력과 조직이 서 있다면 그 조직과 권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노리기에 많은 돈과 힘을 여기에 소모하고 있는가? 결국 가져올 것은 노동계의 불신과 분열장장 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의 일체감을 더욱 파손시키는 결과밖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땅에 정말 진정한 의미로 종교자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지녔지만 이제야말로 이땅에 선교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8. 3. 20 교련수회 기도회의 김수환 추기경 장문 중에서)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④ 4341 군산 ④ 3032 이리 8629  
한 등 암 (모이세)



# 나를 기념하기로

성체는 신앙의 신비

김 영 구 신부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그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빛도 그 강도(強度)를 달리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베를레헴의 말기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안에,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많은 천사들은 흥중을 날으며 구세주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이상한 별의 인도를 받아 동방에서 세명의 박사들이 조배하러 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회개를 요하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부의 소리는 "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불산상의 현성용에 있어서 신앙은 유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주성의 빛이 그 인생의 길목을 거쳐 밖으로 비쳐 제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여기에 반하여 십자가 위에서, 운명할 때, 백부장은 "이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천지만물은 대요동을 함으로써 죽어가는 자기들의 창조주께 경의를 포함합니다. -부활의 영광, 신인의 개인적 광채-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신비에서는, 신앙의 공덕을 위해, 항상 어둠에 봉착하지만, 동시에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충분한 광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천주성도 인성도 나타나는 바 없이 우리의 오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체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성변화 전에 제대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빵과 포도주 뿐입니다. 성변화 후에도 우리의 오관에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맛으로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그안에 감추어진 천주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천주성만이 감추어졌으나, 여기서는 인성도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찬미가 Adoro te)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천주성을 선언하실 때 항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확실히 인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자"(요한 3, 34)로, 「하느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을 능히 행하는 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사람 니고데모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서는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 3, 2)고 물었습니다.

신앙하기 위하여는 물론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숭고한 강론은, 학자와 무식한 사람과의 차이없이 그들의 신앙을 듣고,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체의 기적에 있어서는 "이는 배꼽이 아니라, 이는 내피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신앙의 논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성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성체의 신비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성은 완전히 그 기능이 전도됩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성체에 관해서 계시하셨을 때, 유태인들처럼,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 6, 60)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저 충실한 사도들처럼 예수께 마음으로부터 속삭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또 알고 있습니다." (요한 6, 68-69)

## 요심이 (252) 리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교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 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⑤ 1 5 8 5  
◎ 감초당 약국 앞 -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⑤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교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회정의 세미나 및 정의평화 기원미사 (29일(월))
    - ① 세미나 (11시~오후 4시, 가톨릭센터, 회비 1,000원)~주제: 계화도 사건 사례보고, 농민회 활동 당면문제
      - ※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대표, 지관장 및 관심있는 평신도의 참석바람
    - ② 미사(오후 8시, 전동성당)~주제: 김덕덕 주교
      - ※ 교구 내외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의 많은 참석바람
      - 전주시내 분당은 당일 저녁미사를 없이 하고 신자들이 이 미사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바람
  2.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총 누계 5백1만6천7백4십원 (전년도 대비 113%)
    - 추가분...전동 45만원 (1인평균 114원, 전년도 대비 214%) 황등 136,115원 (평균 144원, 대비 130%), 장수 2,120원 (누계 17,566원), 마야 2천원 (누계 134,802원)
  3. 지성인들을 위한 신앙강좌 (6월 9일(금) 오후 8시, 가톨릭센터 강당)
    - 강사...박도식 신부 (철학박사, 광주 대전신학대학 교수)
  4. 군옥지구 중·고등학교생 합동미사 (6월 3일(토) 오후 5시, 팔마성당)
  5. 전주시내 학생 체육대회 (6월 4일(일), 해성중고등학교)
    - 알림: 유종환(마래오)신부님 모친 입원: 전주 대학병원 3병동 139호실
- ※ 김재덕 주교님 6월 5일 출국 예정  
외국 여행경에 오르시는 주교님의 건강과 하시는일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승현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의 밤(저녁 8시 성모상 앞) 29일(월) 중·고등학교생, 30일(화) 주일학교, 31일(수) 신자 전체 ※ 지참물: 목주, 성가책, 초
  2.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일(목) 오후 2시(강당)
  3. 성심부녀회 정기총회: 2일(금) 오전 11시(강당)
  4. 본당주보출일: 2일(금) 본당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오늘부터 세 번씩 성경을 사용(사무실에서 판매함)
  6. 신품공시: 강덕행(요셉)부제
- 지난주 봉헌금: 151,710원 ※ 회합실을 깨끗이.....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사도회 월례회: 금일 저녁미사 후 사도회 상임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신용조합자산 1억원 돌파 기념행사: 금일공식미사후
  3. 재속 청년회 피정: 6월4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참가비 500원(식비 포함)
  4. 본당신부 임시출국: 공신부님께서 양친의 위급한 병환으로 잠시 고향에 가셨음니다 위로금및 선물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반회합: 남노송동 29일(월)-성심반, 중도반, 유아동 6월 2일(금)-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85,52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사시간 변경: 주일-10시, 3시 월-오전 5시 화·수·목·토요일 저녁미사-오후 8시30분 금요일-오전 10시
  2. 영어 성경연구 회원모집: 대상-중·고생 (사무실에)
  3.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권명, 김용식, 이범수
  4. 성모의 밤 행사: 저녁미사 후, 초 지참, 기도는 각 단체별로
  5. 제대꽃 봉헌: 최덕래(엘리사벳) 감사합니다
  6. 박아가다씨 회갑 축하합니다(지난 25일)
- 지난주 봉헌금: 73,56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모의 밤 행사: 오늘밤 미사 후, 초 지참 각 신심단체: 기도, 꽃 봉헌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반회합 회의: 30일 저녁미사 후 정의평화 미사관계로 연기
4.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박흥기씨 배)
5. 화성회 임시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4일 체육대회 대비)
6. 복자신용조합 임시총회: 5월 28일 11시(강당)
7. 첫절례 7: 6월 3일(토) 저녁 8시
8. 오늘 1일교장: 양규철(복자신협 이사장) 다음주 1일교장: 서용현
9.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5월 28일-정수산나, 31일-안병주, 6월 1일-박

부남, 2일-유정희, 4일-김성자, 5일-최소자  
□ 지난주 봉헌금: 195,14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2. 성모의 밤 및 기우제 미사  
일시: 28일 밤 대상: 제단체 및 전신자  
준비물: 목주, 초, 꽃다발, 축시, 축가, 성가책
  3. 예비자 접수: 많은 예비자 안내하여 사무실에 접수
- 지난주 봉헌금: 40,875원

(숲정미)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6월 4일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 반장 및 임원 참석바람
  2. 요안니 월례회: 공식미사 후 회원 전원 참석바람
  3.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6월 4일
  4. 성모의 밤 행사: 5월 28일 저녁미사 후 지참물: 목주, 기도서, 성가집, 1인당 초 한자루 각 신심단체별로 화분 하나씩
  5. 예비자 교리: 5월 30일 오전 10시개강 매주(화, 수, 목), 오전 10시~11시
- 지난주 봉헌금: 90,42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중  
보좌 신부 유유석  
사도 회장 유유석

1. 글라라 형제회: 1시 30분
  2.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다음주일 2시
  3. 푸른군단 토요미사후 성체강복
  4. 주일학교 야외미사: 다음주일 임업시험장 오후 2시
  5. 파티마 성당 가림위원회 해단식: 저녁미사 후
  6. 장우회 경로잔치: 한벽루 천변(오늘)
  7. 학생회: ① 지난 5월18일 해성중·고 체육대회 성료 ② 6월중 학생회지 발간 예정
  8. 가정심방: 동완산동 일부, 교동
  9. 성모의 밤 행사: 30일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168,570원

(파티마)

전화 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분당 행사 안내: 일-유아세례(저녁미사) 후 전날 본당에 연락, 어린이미사-오후 3시, 예비자교리-오전 10시미사 후, 부녀회-오전 10시미사 후, 구세주의 모친 PR-오전 10시미사 후  
월: 파티마의 모후 PR-오후 8시  
수: 사도회-오후 8시  
목: 병자방문-하루종일, 수요일까지 연락  
금: 어머니 미사-오전 10시, 교리교사 회합-오후 6시, 예비자 교리-오후 7시
  2. 부녀회 임원 명단  
회장: 강모니카, 부회장: 이안나, 총무: 진골름바, 서기: 소율리아
- 지난주 봉헌금: 30,030원